

“신뢰 경영에 기반한 혁신…100년 은행 주춧돌 놓겠다”

정일선 광주은행장 취임

‘변화·혁신·영업 제일주의’ 로드맵 제시
자산강화 원년·디지털 대전환 추진 강조
체질 강하고 결과를 만드는 은행 등 실현



“58년의 자산을 발판 삼아 100년을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혁신을 향해 나아가 지역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신임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4일 “창립 58주년을 맞아 이제는 반세기를 넘어 100년 은행의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며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1700여 광은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정 은행장은 지난 2일 본점에서 임직원과 주요 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창구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며 체득한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은행은 고객이 있어 존재하며, 이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진리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광주은행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해 “AI 기술 확산과 빅테크의 금융 진출, 교환율·내수 침체·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 속에서 지방은행은 생존을 넘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8년간 지역과 함께하며 쌓아온 두터운 신뢰와 탄탄한 고객 기반, 빠른 실행력과 강한 조직 응집력은 광주은행만의 고유한 경쟁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영업 제일주의’를 100년 도약을 위한 경영 나침반으로 제시하고 △체질이 강한 은행 △과감하게 혁신하는 은행 △실행으로 결과를 만드는 은행 △지역과 노사가 함께하는 은행 △함께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은행 등 다섯 가지 핵심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광주은행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겠다는 다짐과 함께 은행기를 흔들고 있다.

먼저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중심 경영을 통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질이 강한 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년을 자산 기반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건전성 시스템을 정밀 재설계하고, 정도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Zero to One’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 신설한 신성장 전략본부와 AI혁신부를 통해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보고 중심이 아닌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결정 즉시 행동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결과를 만드는 은행’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보고와 형식적 관행을 줄이고, 실무 조직 중심의 권한 이양을 통해 추진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강화에도 힘쓴다. 지역 상생 기금 조성 등 실 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노·사 상생 TFT를 구성해 성

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함께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은행’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와 세대 간 융합문화를 통해 직원의 성장과 삶의 균형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일선 은행장은 1995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영업과 여신, 인사 부서 등을 두루 거쳤으며 2023년 부행장보, 2024년 부행장으로 승진하며 조직관리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난달 17일 추충에서 제15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도 함께 살아난다”

정일선 광주은행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산업 현장 찾아
(주)회원 생산라인 둘러보며 지역 기업과 소통·협력 약속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하남산단에 위치한 지역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주)회원 (회장 양진석)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신임 은행장이 취임식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금융 현장이 아닌 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경청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주)회원을 방문해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진석 (주)회원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정 은행장은 프레스 라인을 중심으로 생산 공정을 둘러보며 주요 설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현장에서는 기아 쏘울과 셀토스 차량에 적용되는 차체 부품 제조 현황이 소개됐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EV 관련 부품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 면담에서는 제조 현장의 운영 상황과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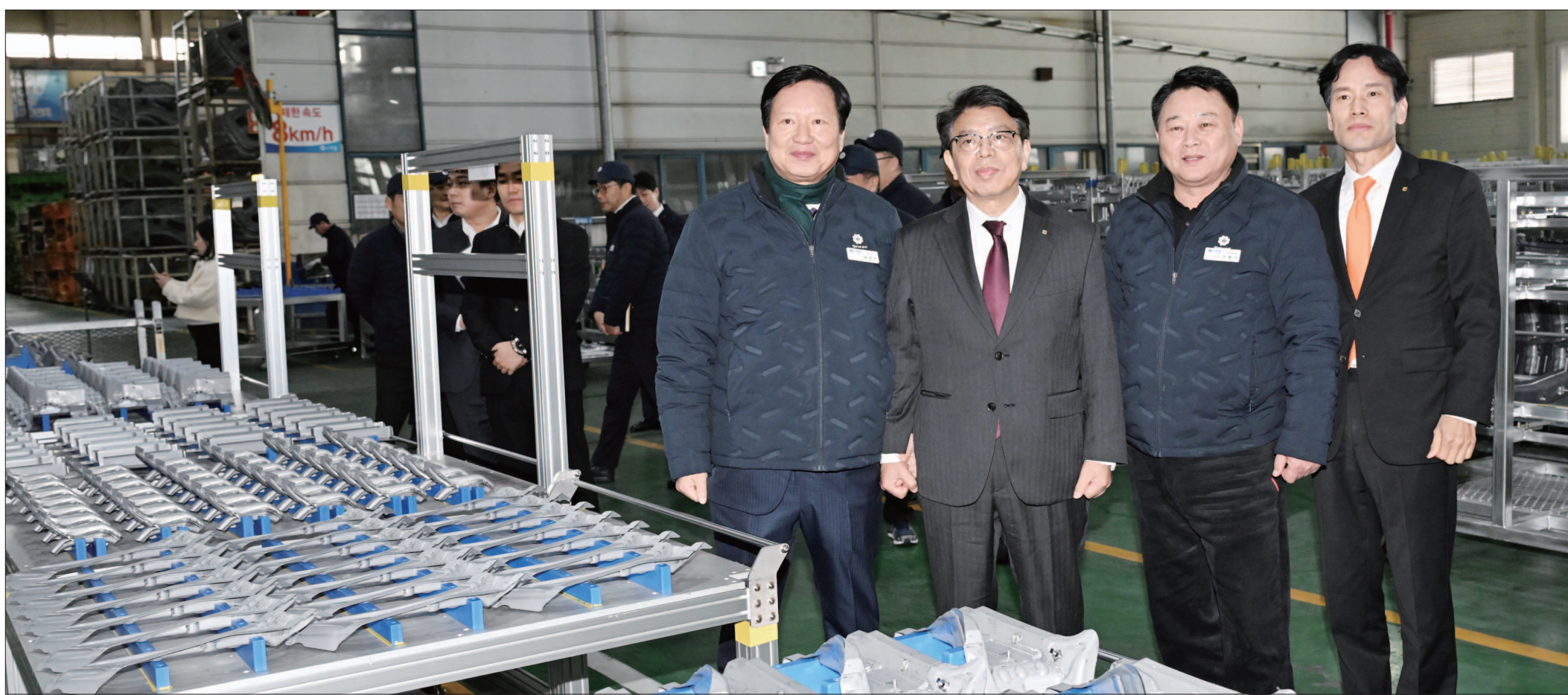
정 은행장은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그동안 지역사회에 보여준 헌신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회원이 지역 내에서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해 온 과정 자체가 지역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난다”며 “광주은행 역시 지역의 기대와 생활 속에서 역할을 다하는 은행으로 현장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양진석 회장은 “초기 공장 규모로 출발해 설비 투자와 사업 확장을 이어오면서 지금의 성장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권과의 거래가 기업 운영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금융 지원과 신뢰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에 더욱 매진해 기업의 성과로 지역사회에 보



정일선 광주은행장 (왼쪽 두번째)이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주)회원을 방문해 양진석 (주)회원 회장 (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주)회원은 글로벌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기업으로 1986년 필터 및 수처리 제조업으로 설립된 이후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현재의 자동차 부품 중심 구조를 갖췄다.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 구조를 전환해 온 과정이 그룹 성장의 출발점이었다.

1990년대 후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한 회원은 매출처 다각화를 추진하며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편입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 현대모비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자동차 차체 부품을 중심으로 한 거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회원은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외

생산 거점 확보에도 나섰다. 2007년 튀르키예에 회원오토모티브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국내에 회원오토 법인을 추가로 설립해 생산 체계를 확대했다. 현재 그룹은 국내 6개, 튀르키예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자동차 차체 전반(BIW) 부품이다. 튀르키예 회원오토모티브는 차체 전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사업장을 통해 자동차 차체 관련 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회원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수준에 맞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질 평가에서 품질 5스타 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고도화가 거래선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

수출 실적과 관련, 2억 달러 수출탑 수상과 금탑산업훈장 수훈 등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포드, 토그, 피아트 등 해외 자동차 메이커와의 거래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회원이 해외 자동차 시장을 대상으로 한 거래 기반을 구축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글로벌 시장과 관련한 전략은 튀르키예를 거점으로 한 해외 자동차 메이커 시장 개척에 맞춰져 있다.

포드 Q1 시스템 인증을 통해 입찰 자격을 확보했으며 차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글로벌 소싱 구조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제시돼 있다.

중장기 경영 방향은 ‘글로벌 비전 2030’에 담겨 있다. AMR 기반 물류 자동화와 부품 로딩 자동화, 비전 검사 자동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제조 현장에는 MES 제조실행시스템과 FEMS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무 업무 전반에는 RPA 자동화를 적용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또 탄소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 협력사 및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 경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제조 공정 효율화와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